정론직필 64년 光州日報 …100년 향한 호남 대변지

광주일보가 창사 64주년을 맞았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편다'는 가치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대사를 헤쳐온 광주일보의 발걸음은 호남의 역사 그 자체였다.

1952년 2월 11일 타블로이드판 창간
2015년 5월 28일 지령 2만호 발행

'광주학생 4·19 발자취' '의병열전' 등
한국 현대사 족적 남긴 기획물 다루고

'백제의 숨결' '亞문화원류를 찾아서'
호남과 아시아 역사·문화 재조명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 창간호.

1980년 통폐합된 광주일보 창간호.

2015년 4월 3일자 '청테이프 KTX'.

2015년 5월 28일자 광주일보 2만호.

1980년 6월 2일자 '무등산은 알고 있다'(옛 전남일보).

1970년 광주공설운동장에서 10만명이 몰린 가운데 치러진 제 15회 호남예술제 개막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현대사 산증인 64년**=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는 민족 상잔의 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1일 타블로이드판 2개 면 첫 호를 창간호로 발행했다. 다른 뿌리인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고 지난해 5월 28일 지령(紙齡) 2만호를 발행했다. 광주일보가 창간일을 4월 20일로 잡은 것은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법인 설립 등기일(4월 20일)에서 비롯됐다.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광주일보의 3대 사시(社是)는 호남 대표지로 지역민과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광주일보의 64년에는 대한민국과 호남이 헤쳐 온 지난 세월,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IMF 외환위기, 한·일 월드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세월호 침몰 참사 등 격동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했고 1960년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된 마산상고 학생 사망과 마산 시위 사건 보도를 비롯, 광주·전남 4·19 혁명 소식을 다루며 시민정신을 일깨웠다.

언론 암흑기인 유신 시대, 19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기자 41명이 언론자유 실천을 결의하는 등 정론직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난 1980년 5·18 민중항쟁 때는 10일 동안 신문 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2일 '아, 광주여'(옛 전남매일), '무등산은 알고 있다'(옛 전남일보) 등 제목의 기사로 피맺힌 절규를 대변했다.

당시 군홧발에 짓이겨 광주의 참극을 알리지 못해 진실보도의 의무를 저버린 자책감과 반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슬픔에 휩싸이게 한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에서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전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도 언론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민과 함께… 사회 변화 주도**=광주일보는 64년 동안 유익한 읽을거리로 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는데 힘써왔다.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시대변화에 한발짝 앞서나가는 기획물 등으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광주일보가 지난 1960년 4월 23일부터 광주에서의 4·19 전개과정과 뒷얘기들을 기록한 '光州학생 4·19 발자취'라는 기획물은 현대사 현장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기록이었다.

지난 1973년 9월 1일부터 1975년 8월 15일까지 2년간 553회에 걸친 연재물인 '광복 30년'과 1975년 12월 1일부터 1977년 7월 21일까지 439회에 걸쳐 연재한 역사기획물 '義兵列傳(의병열전)'은 한국 신문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연재물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5·18 -9년'은 1989년 1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47회를 게재하며 5·18 진상 규명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발전 기수(旗手)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5·16 쿠데타 이후인 1966년 3월 19일 국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 영남 위주 경제 개발과 지원을 언급하며 '호남 푸대접' 문제를 제기, 호남 발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압박해 호남선 복선화 착공(1969.10.8), 호남고속도로 기공(1970.4.15) 등을 이끌어냈다.

언론 통폐합 조치 이후의 첫 기획연재물인 '榮山江을 살리자(45회)'는 제 5공화국 들어 심리적 절망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영산강 개발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농업혁명(1992년·35회),바다경영시대(1995년·31회), 전남쌀을 한국대표 브랜드로(2004년·50회) 등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연재물을 게재하는 한편, '온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 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찾기' 등 사회 흐름을 주도하는 다문화사회 기획물을 연재하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등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사실 보도에 충실하는 한편,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라는 기획물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의 '세월호'와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광주일보 64년…'호남 문화사'**=광주일보는 광주·전남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남도창'(南道唱·1973년·26회)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했던 남도 판소리를 정리해 학계·예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연재물.

1987년부터 4년간 140회를 주간 연재한 광주일보 사상 최초의 전문 종교물인 '천년가람(千年伽藍)'은 500여 전남 사찰 대부분을 역사적·학문적·문화재적으로 정리하는 등 우리 불교의 모든 것을 풀어나간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1987년부터 2년간 66회 연재한 본격 역사탐구시리즈 '백제의 숨결'은 축소·왜곡된 백제사를 바로잡았으며 국내에 백제사 재조명의 붐을 일으켰다.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는 지난 2012년 4월19일부터 중앙아시아·인도·중원·인도차이나 등 9개국을 도는 대장정으로 지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기획물이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 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체육 영재 발굴과 지원 사업도 주도했다.

광주지역 최초의 사설공립도서관인 남봉도서관(옛 전일도서관)을 개관하고 광주 최초 사설미술관인 남봉미술관(옛 전일미술관)을 열어 문화 창달에 선봉에 섰다.

광주일보가 진행하는 '호남예술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역사로 평가받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61회를 맞는 호남예술제는 예술인들을 키워낸 텃밭으로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이 꿈의 씨앗을 뿌렸고 그 꿈에 물과 거름을 주고 키워낸 행사였다.

특별한 문화 행사가 적었던 1970년대만 해도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15회(1970년) 호남예술제 개막식에는 무려 10만명의 인파가 광주공설운동장에 모여들 정도였다. 창사 61주년을 맞아 복간한 자매지 '예향'도 지역 내 수준 높은 문화 예술 담론을 담아내면서 소통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3·1 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전국적인 체육 행사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융 6억3천만원 있슴,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서교동, 상업지역, 대지매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융 12억 5천만원 있슴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9억 5천만원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등등 적합
주인직매 H. 010-8829-6876

오천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교육비 1,200만원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